



이수길/국토개발기술사
(주) 경일기술공사
기술상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

요즈음 뿌연 서울하늘을 바라보면서 옛날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또 자주 내리는 비와 황사로 인한 잿빛 구름은 햇볕에 대한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하곤 한다.

동양인의 생활관은 인간의 생활은 자연의 바탕위에 영위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은 일종의 "자연과의 동화작용"이며 자연과 균형있는 조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오고 있다.

현대의 모든 환경문제는 인간이 자연과 적대관계에서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온 인간 중심적 서구 물질문명의 부작용이라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도시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도시의 생활환경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기울어

져가는 원인은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에너지 소비의 격증에 대해서 경제성장에 우선권을 주고 생활기반을 경시하는 정책의 잘못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부분적인 장점을 추구한 나머지 전체에 미치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자세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으니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나는 인간이 자연계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자세이다. 이는 자연계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때에 인간은 국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계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고 그리고 자연계를 조정하는 일도 망각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자세

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현상의 자연성과 질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와같은 인식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알고 이에 대응해서 자연현상을 국부적인 특성에 따라서 발견하게 되어 자연계가 손상되는 일을 방지하고 인간의 무지로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을 사전방지하는 자세이다.

우리 인간은 동물·식물·토지·하천·도시촌락과 같이 자연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다. 환경의 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장에 해야할 일은 공기, 물, 흙 등의 오염을 제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지구의 기후변화와 소음, 오염을 막는 일이다.

오염은 공기, 물, 흙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말하며 그것은 인간생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물, 산업활동, 문화자산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변화이다. 오염물질

(Pollutants)은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버린 물질의 잔유물이며, 오염은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1인당 요구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각자가 버리는 물질이 많아져 이미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구의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길은 인구를 적절한 수준

에서 조절하고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의 기본적인 군집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야 인간도 외롭지 않으리라.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나 기술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 사회학자, 정치가, 경제학자 모

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자연은 그 자체의 존재를 가늠케 하는 원리와 법칙 곧 섭리를 갖고 있으니 변화와 자기조절 및 평형의 원리이다. 또한 생태계는 순리와 질서 그리고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오묘한 조화로서 무지한 인간의 간섭은 어떤 경우에서건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